

project statement 1. 사용자가 스크랩한 내용을 묶어 하나의 맥락을 만들어 내는 서비스

2. 페이스북에서 '나만보기'로 공유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

Problem 페이스북 이용 형태 분석

1. 페이스 북은 많은 자료를 공유하고 얻을 수 있지만, 최신순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좋은 정보와 자료를 공유만 해놓은 채 다시보지 못하는 것들이 생긴다.
2. 자신이 임의로 정한 맥락에 따라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
3. 다양한 정보들이 서로 뒤섞여있다.
4. 내가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와 나만보기하는 정보들이 서로 뒤섞여있다.
5. Ctrl+F와 같은 검색기능
6. 스크랩해놓고 자료를 찾아서 엮을 수 있는 것이 불가
7. 나만보기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글 내용 자체를 편집할 수 있으면 편할 듯하다.
8. 습관적으로 원하는 내용을 찾을 때까지 뉴스피드를 내린다.
9. 좋아요와 나만보기로 공유하는 것은 활용도의 차이이다.
10. 사회적인 문제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의 경우 나의 활동 로그로 들어가서 확인하기도 한다.
11. 온라인일 경우에만 볼 수 있다.
12. 비슷한 의견 혹은 반대되는 의견을 서로 묶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.
13. 내가 직접 저장했던 것들 혹은 언뜻 보았던 것을 찾을 수 없다.
14. 공유했던 순서를 추측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.

→ 장점: 정보 접근성이 좋다. 생각지 못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다.

단점: 예상치 못한 것은 발견할 수 있지만, 찾고 싶은 정보를 검색해서 정리가 안 된다.

Concept

→ 아이디어션을 위한 행위

→ 기능: 태그, 분류 방식의 차이(사용자가 저장한 콘텐츠들을 보여주는 방법), 매크랩(맥락 묶기)

→ 페이스북에서 가져오기 방식은, '가져오기' 버튼을 눌렀을 때 최근 것 10개부터 가져오기 가능(more으로 과거의 것을 가져오기)

→ 모바일, 타블렛에서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 페이스북 나만보기 외의 페이지, 사이트에서도 곧바로 스크랩을 앱으로 가져올 수 있다.

→ 스크랩한 콘텐츠에 대한 메모 작성, 매크랩 묶음에 대한 메모 작성(사진은 스크랩만 가능, add버튼으로 사진을 추가하는 것은 X)

→ 꺾 누르면 장바구니 같은 공간이 생겨 던져 넣을 수 있다. or 안드로이드의 갤러리처럼 체크박스를 체크해서 확인 버튼을 누른 후 매크랩을 생성한다.

→ 태그들을 사이드바에서 #가, 나, 다, a, b, c로 나열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다양한 태그들을 드래그 혹은 클릭하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.(e.g. 카카오톡 친구목록의 사이드바)

※ default 페이지 미정; 아마도 최신순? 같은 태그를 가진 콘텐츠들끼리 함께 보여준다.

※ 스크랩만 할 것이면 기존의 서비스도 충분하다는 것을 고려